

UN기후주간·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총력

‘권한대행체제’ 전남도, 첫 현안회의 특별시 준비·중동사태 비상경제 점검 공직기강·정치적 중립·공명선거 당부

전남도는 10일 도지사 권한대행체제 전환 이후 첫 현안회의를 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대한민국 녹색전환(K-GX) 국제주간,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4월 여수에서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과 녹색전환 국제주간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국제사회에 알릴 중요한 국제행사로 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황기연 전남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선 전남·광주 통합 이후 열리는 첫 국제행사인 여수세계섬박람회가 통합특별시의 위상과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줄 중요한 행사인 만큼 성공 개최를 위해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황기연 전남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 10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현안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특히 같은 시기 개막하는 광주비엔날레와 연계해 세계적인 2개 행사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협력 방안도 주문했다.

전남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를 위한 행정통합 실무도 본격 추진한다. 실·국별로 3월 중순까지 통합과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해 5월 말까지 추진하고, 6월 시범 운영을 통해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대민서비스와 행정·재정 시스템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국고예산 확보와 관련해서선 도정 핵심 현안이

정부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할 것과, 전남·광주 통합과 연계해 발굴한 사업의 논리를 보강해 중앙부처 건의 활동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황기연 권한대행은 “지난 9일 김영록 전남지사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에 따라 도지사 직무가 정지되면서 권한대행 체제로 도정을 운영하게 됐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한 치의 도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또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기간 동안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제한 사항을 전 직원이 철저히 지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최근 중동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관련, 산업과 민생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9일 ‘비상경제 대책 TF’를 본격 가동했으며 10일 오후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열어 분야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김재정 기자

전남개발공사, 임신 축하·출산 지원 확대

유연근무 세분화·가족수당 인상

가족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 앞장

전남개발공사가 저출생 대응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출산·양육 지원 제도를 확대하며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가운데 전남도는 2025년 전국 시·도 가운데 함께 출산율 1위(1.04명)를 기록하며 저출생 대응 정책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전남개발공사도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다양한 가족친화 복지 제도를 정비하고 직원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복지 제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올해 전남개발공사 내 출산 예정 직원은 12명으로 전년 대비 3배 증가했다. 이는 전남개발공사 내에서도 보기 드문 이례적인 수준이다.

전남개발공사는 그동안 추진해 온 가족친화 복지 제도 개선과 근무환경 조성이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출산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전 직원이 마치 자신의 일처럼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는 조직 문화가 형성되면서 가족 친화적 분위기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임신·육아기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유연근무제 선택 단위를 기존 1시간에서 30분 단위로 세분화해 근무하도

록 했다.

또한 가족수당 인상과 가족돌봄 휴가 신설을 통해 가족 돌봄 지원을 확대했으며, 난임치료 휴가 사용 시 비밀 보장과 불리한 처우 금지를 명문화해 난임·출산 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출산축하금을 상향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해 안정적인 지급 체계를 마련했으며, 임신 직원에게 축하 선물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정서적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장종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에 부응해 임직원이 안심하고 출산과 양육을 준비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드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전남, 저탄소농산물 인증 ‘전국 50%’ 청신호

상반기 3천10ha 인증 신청 54% 점유

전남도는 10일 “올해 저탄소 농산물 인증 면적 점유율 전국 50% 목표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접수한 올해 상반기 전남의 신규 인증 신청 건수는 전국 380건의 54%에 해당하는 207건에 이른다.

신청 면적은 3천10ha로 전남도가 목표로 정한 인증 면적 2천336ha(기존·신규 8천ha)의 128%

에 달하는 수준이다. 시·군별로는 해남이 637ha, 영암 456ha, 영광 277ha, 나주 220ha 등이다.

이는 2024년 전국 하위권(4위)에 머물렀던 인증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 최초 인증 확대 계획 수립, 21개 시·군 순회 설명회 5회, 대면 교육 5회 794명, 신청 대행,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사업’ 선정 기준 완화 등 각종 제도 개선 건의 노력 이후 호조했다는 분석이다. /김재정 기자

박철호 시의원 예비후보, 생활밀착형 공약 발표

교통·생활SOC·복지인프라 확충

박철호 광주시의원 예비후보가 10일 남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밀착형 공약을 발표했다.

박 예비후보는 “남구는 구도심과 신도심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교통, 생활 인프라, 주거 환경, 복지 등 다양한 정책이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국회·광주시·남구를 두루 경험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남구의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주월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체계 연계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과 도시 트램 도입, 광역 환승체계 구축 등을 추진

해 남구의 교통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월산동 도시재생 및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구도심 생활 환경 개선에도 힘쓰겠다는 구상이다.

월산동 일대에 복합 문화·생활 거점 시설을 조성하고 상권 활성화와 생활 인프라 확충을 연계해 지역 활력을 높이고 월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물론, 중단된 월산권역 우·오수 분리사업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철호 예비후보는 “지방정치는 거창한 구호보다 주민 생활 속 변화를 만들어 내는 정책이 중요하다”며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정치로 남구의 변화를 결과로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변은진 기자

광주시, 석유판매업 합동 점검

광주시는 ‘이란사태’로 국내 석유 가격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건전한 석유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10일부터 ‘석유판매업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국내 석유 가격 급등으로 가짜 석유 제조·유통, 정량 미달 판매 등 법령상 금지

행위가 우려되는 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자치구,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반을 구성해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현장 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합동점검은 고위험군 석유판매업소(일반 대리점, 주유소 등)가 대상이며 가짜·품질 부적합 석유 판매, 정량 미달 판매 등 불법 유통 행위를 단속한다. /변은진 기자

광주 안의 유일한

친환경 수목장

☑ 아름다운 자연

☑ 365일 관리

☑ 가족구성 가능

☑ 사용기한 없음

☑ 전문 이장

☑ 광주시청 20분

수목장 · 묘지 이장 · 장례

상담: 062-449-4446

